

'집장사 건물' 다세대·상가, 국가대표 출격

27 May, 2016 | 노형석 기자

문화

'집장사 건물' 다세대·상가, 국가대표 출격



서울 곳곳의 번듯하리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밀집지역을 찍은 대형사진배열로 한국관 안에 채워졌다.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 D-1...한국관 '용적률 게임' 전시



한국건축계 현안인 용적률 주제 삼아 기발한 공간활용법 사진 모형 영상까지... 2년간 황금사자상 연속 수상할지 주목

“꼭 봐야 할 전시관”
NYT의 추천 이어 워싱턴에도 후끈 작가 88명 본전시회 최재은씨 초청받아 'DMZ 꿈의 정원' 출품

속담판을 짓고 밭코나 배반타를 거실, 다용도실로 꾸며 들인 한국 특유의 다세대주택, 상가 건물들이 한국 건축의 대표 선수가 되어 베네치아에 출격했다. 2014년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건축제인 '2016 비엔날레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의 한국관(작은 사관)이 이 건물들의 난장이 됐다.

베네치아 시내 자르다니 공원 안쪽 구석에 자리한 한국관이 25일(현지시간) 낮 개관식을 열고 지금 한국 도시의 전형적인 '집장사' 건축물들을 선보였다. 1995년 건축가 김성철의 설계로 건립된 한국관의 올해 전시는 김성철 중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다. 식후 공개된 관내 70여명의 3개 전시장에는 한국 도시건축계 현안인 '용적률 게임'을 주제로한 건축편의를 늘리기 위해 집장사, 건축주 등이 주거, 상가 건축들의 공간을 기발한 방식으로 뒤엎고 변형시킨 단면들이 사진, 모형, 영상으로 나왔다. 김 총감독은 "전통한 집장사 건물이라고 건축계에서 무시당했던 빈부더 증개축 건물들이 처음으로 세계 건축전문 현장에 당당히 등장했다"며 "우리 건축계에 던지는 선의의 의기가 크다"고 했다.

전시는 공간에 대한 전면적(전면)을 비워낸적의 함의와 비움인 용적률을 늘리기 위한 건축주, 합작 건축가들의 욕망과 고심을 드러냈다. '용적률 게임' 개념을 설명하는 물머리 도입부에 이어 중앙홀에 한국 도시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상업 건축의 전형은 담은 3개 건축물의 갖가지 모형들이 대형 전시대 위에 설치돼 시선을 이끌었다. 곡면의 유리 외벽 안쪽에는 이번 건물들이 밀집한 서울 중동 등 빈두라 주택가를 찍은 대형 흑백 사진들을 배치했다. 옥상 밭코나 등 용적률을 의식해 변형시킨 증개축 부분에만 빨간색을 입혀 놓았는데, 구석구석 빨간색들이 출몰하는 도시 풍경에서 용적률이 한국 건축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외부의 반도도 포함이 많다. (뉴욕 타임스)는 온라인판에 한국관을 비엔날레에서 놓치지 말아야 전시열 6곳중 하나로 선정했고, (가디언), (레프트) 등의 취재도 잇따랐다. 이번 전시는 김 총감독과 신은진(개인전·안기현(현상대) 교수, 김승범(VW 렐 대표) 정이삭(에이코랩 대표) 정다은(코아키텍츠(주)장)씨가 기획했고, 강정은(문화)·백승우(사진)·정원두(설치) 등의 미술가들도 참여했다.

자르다니 공원과 시내 일대에 흩어진 60여개 나라의 국가관 전시와 옛 조신스타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본전시주제전으로 구분되는 올해 행사는 28일 공식 개막 전부터 관심이 뜨겁다. 전체 총감독인 질베 건축가 알레안드로 아바베나는 지난해 빈민들이 건축에 참여하는 '반쪽 주택'으로 건축계의 노벨상 격인 프리즈프리스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도 '전시에서 보고(Reporting from the Frontline)' 주제로 세계의 삶의 정을 놓이는 사회적 건축의 최전선에서 각 지역 건축가들이 벌이는 여러 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난민 문제와 빈부격차 세계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건축계 주 담론을 형성해온 초월적 미학적 흐름보다 피부에 와닿는 사회적 건축의 대안들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독일관이나 '기적 경제'를 주제로 삼은 영국관 등이 벌써부터 화제다. 37개국 8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본전시에는 한국 설치작가 최재은씨도 초대돼 이젠만큼 종이삼터로 유명한 일본 건축가장 반 시게루와 협업하며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꿈의 정원을 짓는 작품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1960년 시작된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은 올해 15회째다. 출수해에 미술인, 작수해에 건축인이 일한다. 미국 건축주 2014년 건축전 당시 조신의 건축가가 벌인 건축사들 다른 한반도 오강도적으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어 국가관 연속 수상은 이를 수 있을지도 관심사이다.

베네치아/한겨레 기자 nsg@hani.co.kr, 사진 한국문화재단/문화재단 제공

URL: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745541.html>